

88 시멘트 決算書

崔 柄 烈

〈韓國洋灰工業協會 企劃部〉

1988년은 우리 民族史에 있어서 영광된 한해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人類의 제전인 서울 올림픽을 史上 最大 規模로 그리고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競技에 있어서도 세계 제 4위를 기록함으로써 국민에게 영광과 긍지를 한껏 누리게 하였다.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통하여 전세계 인류에게 韓國國民의 성숙함을 과시하였고 東西화합의 場을 유감없이 연출하였다. 그런가 하면 정치·사회적으로는 民主化의 열기와 各계각층의 높아진 目標들로 가득찼던 한해이기도 했다.

한편 經濟面에서는 一部 業種에서 發生한 勞使紛糾로 當初 우려되는 바도 있었으나 昨年度의 全國적으로 熾盛한 勞使紛糾의 影響을 치른 經驗이 있는 使用者와 勤勞者는 이를 슬기롭게 克服하여 平和로운 勞使關係 定着의 靑信號를 보여 주었다.

이런 가운데 安定的인 經濟運用基調하에 安定成長의 기틀을 더욱 다져온 한해였다. 물론 部門別로는 一時的으로 過熱樣相을 보여 우려되는 바도 있었으나 곧 政府의 適切한 措置와 國民的 協助로 解消될 수 있었다.

對內外 經濟與件 變化를 물이켜 본다. 最近 數年間의 3 低라는 經濟好機가 점차 退潮하고 있는 反面에 國內經濟는 새로이 賃金引上, 원화切上, 國際 原資材 價格騰貴의 이른바 3 高라는 惡條件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는 많은 中小輸出企業의 採算性 惡化와 競

爭力 弱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輸出主導型 高度成長 政策을 追求해온 우리 經濟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對外的으로는 美國의 財政·貿易 赤字深化와 이를 탈피하기 위한 對美 市場開放 및 원화의 對美貨 評價切上 壓力이 고조됨에 따라 이러한 苦衷을 加重시키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美國의 立場에 同調하는 EC 등 先進諸國의 加勢로 점차 一般化되고 있는 바 비록 世界 經濟가 回復局面에 있고 美國의 貿易赤字가 縮小되는 조짐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러한 保護主義의 傾向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展望이다.

이러한 與件하에서 우리 시멘트 業界는 어떠한 했는가?

작년 하반기에 業界는 産業의 特性上 부득이 하게 維持해온 輸送共同行爲體制를 政府施策에 副應하여 解體한 바 있다. 그동안의 輸送共同行爲體制에 익숙해 있던 업계로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으나 곧 슬기롭게 이를 克服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이 自由競爭體制에서의 販賣戰略에 腐心하였다. 즉 流通基地 擴充事業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消費者에게 適期에 필요한 量의 시멘트를 納品할 수 있도록 輸送裝備의 確保에 注力하는 등 輸送力 提高에 全力을 다해왔다.

업계의 이같은 적절한 조치로 당초 우려했던 輸送上의 問題點을 극소화할 수 있었던 바 여기에는 특히 勞使紛糾를 自制한 勤勞者들의 협조와 勞苦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겠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했는가?

國內需給 狀況은 우리에게 有利한 局面으로 反轉되었다. 大統領選舉, 總選 및 88 서울올림픽 등의 好材가 겹쳐 있는 狀況에 더하여 전통적인 盛·非需期の 區分을 어렵게 했던 지난 겨울의 異常暖冬 등이 복합적으로 需要促發要因으로 作用하여 시멘트 需要가 急增하기 시작하였는 바 이로인해 地域에 따라서는 供給不足樣相을 빚기도 하였고 生産施設을 풀가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수기중에 靄박한 需給狀況이 상당기간 지속된 바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供給不足을 우려한 消費者의 가수요로 더욱 심화되어 主要 建築材인 시멘트의 需給差跌에 대해 일시적으로 物價當局의 걱정을 주기도 하였다.

業界는 需給不均衡을 최대한 解消하고자 可能한 모든 努力을 다하였는 바 이의 일환으로 年中 非常需給對策班을 構成하여 運營하였고 去來先 維持를 위한 최소한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輸出을 抑制하여 內需로 轉換하였으며 施設補修도 최대한 保留하면서까지 供給擴大에 안간힘을 다 하였다.

特記할 事項은 7월 하순에 發生했던 鐵道사업으로 야기될 수 있었던 需給上의 위기를 잘 넘긴 것을 들 수 있다. 한창 靄박한 需給狀況에서 가장 중요한 輸送手段인 鐵道の 마비는 業界를 不安하게 했으며 對處 方案 마련에 腐心해야 했다. 그러나 關係當局의 妥結 努力과 協助로 短期間內에 問題가 解決되어 우려했던 事態를 防止할 수 있었던 것은 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輸出面에서는 他産業과 마찬가지로 3高로 인한 採算性 惡化 및 競爭力 弱화로 苦戰하여 왔고 最近의 원화 評價切上의 加速化로 더욱 그러한 傾向이 深化되었으나 産業自體의 特性上 內需産業이고 內需急增으로 인한 不可避한 輸出物量縮少로 그런 要因에 의한 損失을 줄일 수 있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어려운 需給 狀況하에서 國際間的 信義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少量이나마 外國産 시멘트를 輸入하여 對應 輸出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對外信

用度 提高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사다마라할까? 7월 하순경에 몇몇 業體에서 水害로 인한 재산 被害와 人命損失까지 냈지만 全般的인 氣流에 決定的인 障礙는 되지 못하였다.

한편 예상밖의 需要 유발로 성수기중 시멘트 공급상의 隘路를 겪었던 業界는 이의 장기적 解消策으로 增設 등 施設擴充에 積極的으로 나서고 있는 바 올해의 事情을 考慮하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向後 올림픽과 같은 好材를 찾기 어려운 점, 經濟成長에 따라 지속적으로 需要는 伸張한다고 하더라도 한계 수요의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點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계획되어 있는 증산사업의 규모와 시기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업계는 중지를 모아 합리적 투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작년 한해 동안의 需給狀況에 대해 言及하고자 한다.

1. 需 給

88년의 시멘트 需給은 內需의 急增으로 매우 어려운 한해였다. 이는 總選과 올림픽 마무리 工事, 國內景氣의 好調 등에 의한 것으로 供給의 원활함에 總力を 기울여야 했던 한편 輸出에 있어서 既存去來先에 대한 物量配分上의 隘路를 겪은 적도 있었다.

今年的 國內需要는 當初 豫想을 훨씬 上廻하여 前年對比 15.3%의 增加率을 보인 2,620만 톤을 기록한 바 87년의 11.6%에 이어 계속해서 높은 增加率을 나타냈다.

한편 輸出은 前年보다 減少한 370만 톤에 머물렀는데 이는 內需의 急增으로 인한 國內需給差跌을 막기 위해 國內우선 공급원칙을 정해 놓고 既存去來先 維持를 위한 최소한의 輸出 移行에 그치고 內需轉換에 힘썼기 때문이며 그 만큼 國內需給安定에 寄與하는 완충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結果적으로 內需와 輸出을 합친 總需要도 內需好調로 前年對比 8.4% 伸張한 2,990만 톤의 實績을 보였다.

內需의 激增에 따라 生産活動도 活潑하여 80年以後 最高의 稼動率을 示顯하였다. 특히 盛需期인 4~10월간의 平均稼動率은 96.0%에 달해 대단한 實績을 보였으며 年平均稼動率은 91.6%로 前年에 비해 7.7% 포인트 上昇한 實績을 보였다.

1) 生産

今年的 生産을 보면 크링카는 27,366 천톤으로 前年對比 9.2% 增加한 實績을 보였으며 시멘트는 28,983 천톤으로 前年對比 12.9%의 增加를 보여 공히 높은 실적을 시현하였다. 이는 內需 및 輸出을 합한 總需要增加에 힘입어 生産活動을 進行한 結果이다.

한편 稼動率을 보면 年平均 91.6%를 시현하여 매우 높은 水準을 維持하였다. 이를 分期別로 보면 1/4分期 81.1%, 2/4分期 97.3%, 3/4分期 93.1% 및 4/4分期 95.0%로 非需期인 1/4分期를 除外한 全分期가 90%를 훨씬 上廻하는 實績을 보였으며 이를 會社別로 보면 高麗 120.3%, 漢拏 99.3%, 東洋 97.0%, 雙龍 94.3%, 韓一 93.9%의 순으로 生産能力을 上廻하였거나 거의 拮据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으며 現代, 亞細亞, 星信의 平均稼動率은 80.6%로 위 業體에 비해 저조한 편이나 이들 業體에 不可避한 補修가 相對的으로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낮은 水準이라고는 볼 수 없겠다.

2) 內需

88년 內需는 26,233 천톤으로 前年對比 15.3%의 높은 增加를 보였다. 前年에 11.6%의 높은 增加를 나타낸데 대한 상대적 增加勢鈍化 및 올림픽 경기 전후의 건축규제 등으로 수요의 하강 등을 豫想하여 年間 3% 정도의 增大에 그칠 것으로 期待하였으나 結果는 年初 豫想을 훨씬 벗어난 實績을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15.3%의 높은 增加를 보인 主要因은 시멘트 消費의 最大部門인 建築景氣의 전반적 上昇을 꼽을 수 있겠는 바 建築許可面

88년 시멘트 需給總括

(單位: 천톤, %)

		87	88	對比
移越在庫	크링카	680	450	
	시멘트	655	456	
	計	1,335	906	
生産	크링카	25,051	27,366	109.2
	(稼動率)	(83.9)	91.6	
	시멘트	25,662	28,983	112.9
需要	內需	22,755	26,233	115.3
	民需	19,857	23,190	116.8
	官需	2,898	3,043	105.0
	輸出	4,837	3,688	76.2
	計	27,592	29,921	108.4
在庫	크링카	450	350	
	시멘트	456	454	
	計	906	804	

註: 88.12월은 推定值 삽입.

積으로 볼 때 1~10월까지의 실적이 前年同期의 40,309 천m²에 비하여 29.4%나 增加한 52,148천m²에 달했음을 볼 때 이를 알 수 있으며 건축허가실적을 用途別로 보면 住居用 26,076천m², 商業用 14,096천m², 工業用 7,973천m² 및 其他 4,003천m²로 前年同期에 비하여 各各 43.0%, 24.9%, 20.2% 및 △3.7%를 나타냈는 바 시멘트 투입이 가장 많은 住居용이 가장 높은 신장을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전반적인 內需産業의 活性化, 兩大 選舉에 의한 特需, 올림픽 環境造成事業 및 마무리 工事, 지난 겨울의 이상난동 등이 시멘트産業의 好況에 복합적으로 作用하였다고 생각된다.

(1) 季節別 實績

시멘트는 商品의 特性上 需要의 季節性을 지니고 있으나 매년 갈수록 季節性이 퇴색하는 듯하다. 특히 비수기중 1월 및 12월은 10년간의 季節指數와 對比할 때 조금씩 높아지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今年的 月別 수요 동향을 보면 1월, 2월, 7

월, 9월 및 12월은 平均値를 밑도는 實績을 보였는데 1월, 2월, 7월 및 12월은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성수기 월과의 차이는 좁혔으나 아직도 계절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9월은 올림픽 및 중추절이 겹쳐 例年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盛需期라 할 수 있는 5, 10월은 月間 2,600 천톤을 上廻하는 最大 實績을 記錄하여 日平均 85 천톤이나 出荷된 셈이다.

(2) 需要部門別 및 品種別 出荷實績

內需出荷를 需要部門別로 構成比를 보면 民需 88.4%, 官需 11.6%로 87년도가 民需 87.3%, 官需 12.7%이었음을 考慮할 때 每年 民需 比重이 커지고 시멘트 需要를 主導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前年對比로 보면 民需는 16.8% 增加를 보이고 있고 官需는 5%의 增加를 나타냈다.

또한 品種別 出荷實績으로 보면 벌크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를 年度別로 보면 85년의 49.1%를 기점으로 86년 53.6%, 87년 55.8%, 88년 59.3%로 4.5%, 2%, 3.5% 포인트씩 增加하고 있다. 이러한 벌크화율의 向上은 輸送效率의 增大, 保管·管理의 容易, 流通의 單純化, 荷役費用 및 包裝費用의 節減과 消費者에 대한 서비스強化 등 利點이 많은 바 벌크化率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다. 반면 포장시멘트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의 소비자는 少量, 多數라는 點에 비추어 적기 출하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3) 在 庫

88년의 在庫는 전년도 906천톤 보다 100천톤 줄어든 804천톤으로 전년 대비 88.7%의水準에 머물렀다. 이는 需要의 예상밖 急增으로 生産량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금년에는 추석직전 연중 최저수준인 580천톤까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며 需給安定을 위한 적정재고를 1,000~1,200천톤으로 보았을 때 낮은 수준이라 하겠으나 비수기인 1, 2

월에 生産量을 높인다면 89년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월재고는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 하겠다.

2. 輸 出

88년의 輸出은 크링카와 시멘트를 합하여 出荷基準 3,688천톤으로 87년도의 4,837천톤 對比 76.2%에 그쳤다. 이러한 마이너스 현상은 國內需要의 急增으로 因한 不可避한 制限輸出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140백만불로서 87년의 155백만불보다 10% 정도 감소하였다. 이처럼 수량에 비해 금액기준 감소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가격조건이 나은 日本지역 수출이 증가한 반면 조건이 열악한 亞타지역 수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今年的 輸出實績을 主要市場別로 보면 日本 1,826천톤, 美國 499천톤, 香港 491천톤, 마카오 355천톤으로 前年對比 各各 119.2%, 90.6%, 52.3% 및 98.6%로서 日本을 除外한 나머지 國家는 모두 減少한 바 내수 급증에 따라 輸出을 自제한 結果이다.

위 4個國이 全體輸出量에서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86%로 이중 日本의 比重이 49.5%인 바 이와 같은 結果는 日本 現地에 流通基地를 建設하여 積極的으로 마케팅에 注力하는 등의 努力의 結實인데다 엔고로 인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點도 일조했다 할 수 있다.

한편 供給物量의 不足 속에서 國際間的 信義를 지키기 위해 對應 輸出이라는 方案을 강구하여 실시한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본다.

現在 輸出市場은 對外的으로 國際 시멘트 市場의 供給過剩, 既存 輸入國들의 自給度向上 및 輸出國으로의 轉換 등으로 與件이 좋은 편이 아니며 短期間內 이런 상황의 好轉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對內的으로 原副資材價의 引上, 賃金引上, 原料價상 등으로 인한 採算性 惡化로 苦衷을 겪고 있다. 특히 最近의 急速한 原料價 상으로 어려움이 加重되고 있는 바 生産性 向上 및 原價節減 등 經營合理化 努力을 가일층 강화하여 이에 대처해야 하겠다. ♣